# 취/재/요/청/서

**수 신** : 각 언론사 서울시, 서울 각 구청, 보육 담당부서
**발 신** : 공공노조 보육분과,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신당 서울시당
**제 목 :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 제기 및 신임 구청장에 정책 철회 요구**
**날 짜 :** 2010년 6월 9일(월) 오전11시부터 취재의뢰
**문 의** : 심선혜 분과장 (공공노조 보육분과),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상철 정책국장 (진보신당 서울시당), 강상구 위원장 (진보신당 구로당원협의회)

1.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서울형 어린이집'에 SK브로드밴드의 'IPTV' 시스템을 설치할 것을 종용해 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으로 중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각 구청에 IPTV 설치 실적을 사실상 강요해 왔고, 구청은 다시 관할 서울형 어린이집에 IPTV의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2. 그러나 아동과 교사의 생활 모습을 고해상도로 촬영하고 음성도 함께 녹음하여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입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형식적인 동의를 거쳤다고 하지만, 고용관계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사는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지난 5월 4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3. 무엇보다 서울형 어린이집 IPTV는 아동의 신체적 모습과 더불어 이름 등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대화내용을 수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하면서, 아동과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4. **오는 9일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부모들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선포합니다. 더불어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신임 구청장에게 어린이집 IPTV의 철회를 요구합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하는 부모는 서울 구로구 주민으로서 구로구 소재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송인은 향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 소송인단과 우리 단체들은 서울시와 각 구 의회에도 감사를 청구하여, 서울시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특정한 IPTV 업체를 지정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밝힐 것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대한 소송 제기 및 신임 구청장에 정책 철회 요구**

◇ 일시 : 2010년 6월 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구로구청 앞
◇ 참가 : 서울형 어린이집 IPTV에 반대하는 보육교사와 부모 및 관련 단체

※ IPTV란 :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동영상등 정보서비스를 TV수상기와 인터넷홈페이지로 제공하는 융합서비스. KT의 메가TV, SK브로드밴드의 브로드&TV, 그리고 LG데이콤의 마이LGtv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